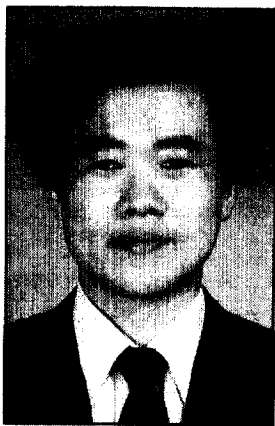


# 가난과 그리스도인의 경제원리에 관한 소고

A Study on Poverty  
and Christian Economic Principles

이건창

1. 서론
2. 가난과 부요에 대한 성서적 개념
3. 성서는 부요를 거부하는가?
4.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
5. “가난 - 그리스도인의 경제원리 - 진정한 예배”에  
기초한 인식틀
6. 결론



이건창,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경영과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동남투자  
자문에서 조사분석 차장으로 재임한 바 있으며, 현  
재 경기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  
다. 과학원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기독교대학 설  
립동역회 서울지부장을 맡고 있다.

## Abstract

A great number of people, regardless of Christian or non-Christian, do not want to be poor even for religious reasons. Poverty has once been regarded as one of religious virtues in the name of diligence or integrity. As a capitalism based on human's selfishness flourishes in 20th century, however, poverty becomes a first-ranked target to be overcome in our mind, which leads to a critical obstacle to Christian life struggling for God's glory in his economic way of living. Most of all, this kind of distorted concept about poverty helps prevent the true worshipers from worshipping the Father in spirit and truth. Considering this problem, this study presents a conceptual framework for over-viewing the poverty and Christian economic principles from the view-point of recovering the true worship.

## 초록

오늘날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간에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가난은 중세기에 있어서 수도원을 중심으로 근면과 청렴이라는 종교의 미덕으로 숭화되기도 했으나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이기심에 그 동인을 두는 자본주의가 크게 대두되면서 어느덧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우리들 마음 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다운 기독교 경제원리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데 오히려 심각한 걸림돌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실패하게끔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성서적인 가난의 개념과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경제원리에 대해 고찰한 후 이를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서론

1897년 「진보와 빈곤」이라는 명저를 남긴 미국의 헨리조지<sup>1)</sup>는 사회가 문명화 되어가고 - 이를 대부분의 사람은 진보(progress)라고 정의한다 - 그로 말미암아 물질적 진보를 이루게 되어도 그와 함께 빈곤, 즉, 가난도 함께 반드시 나타난다는 모순을 그의 저서에서 지적했다. 비단 그 당시 사회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약 100년이 흐른 지금도 그러하며 이러한 풍요 속의 빈곤의 증대화 현상은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당면해 있는 최대 정치적 과제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회, 정치, 경제학 분야에서 이미 “부의 균등분배”라는 명제 하에 많이 논의되어 사회보장제도나 세계개혁등을 통한 구체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책의 효율성은 한계를 드러내게 마련이다. 여전히 이 지구상 한편에서는 영양 과다로 이름도 모르는 성인병에 시달리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비타민 A 캡슐 하나 또는 하루분의 채소가 없어서 수많은 어린이가 평생 맹인이 되는 나라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반 사회현상 중의 하나인 가난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고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경제원리, 그리고 이를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조감하기 위해 “가난 - 그리스도인의 경제원리 - 진정한 예배”라는 관계를 모형화한 인식틀(conceptual framework)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의 제현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시각을 성서적 패러다임 내에 두게 하므로써 사회의 병리현상을 외면하고 영적인 축복이나 개인의 구원만을 강조하여 지체의식을 상실할 우려를 배제하고 또한 지나치게 현실 참여적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념의 도구로 사용하는 폐단을 아울러 지

1) Henry George, Progress and Poverty, Abridged by A. W. Madsen, (도서출판 무실, 1989), 김윤상 역.

양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연구의 의도가 사회현상을 다루는 기존의 여러 신학적 시각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종래의 접근방법을 재정리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진정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환기시키고자 함에 있다.

## 2. 가난과 부요에 대한 성서적 개념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 우선 그 상반된 개념인 부요와 연결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록 존슨<sup>2)</sup>은 가난과 부요에는 등급이 있고 또한 다양한 문화의 표준들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즉 가난과 부요에는 “부유한, 매우 부유한”, “가난한, 매우 가난한” 등의 등급이 존재하며 다양한 문화 표준들과의 관계로는 예를 들어 아프리카 가나의 부자는 미국 맨하탄의 부자에 비할 바가 못되고 또한 인도 캘커타의 거지는 뉴욕시의 South Bronx 빈민의 거주자를 같은 부류의 걸인으로 인식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규범을 규정하고 있는 성경에서는 가난과 부요에 대해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신약성경 중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가난과 부요의 영적 의미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다. 이 두 성경의 기록자라고 알려져 있는 누가는 한마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전도하다’라는 뜻의 동사 ‘*evangelizo*’를 특별히 가난한 자와 연관시켜 사용하고 있다. 가난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첫째는 영적인 가난이요 둘째는 실제 財物이 없는 상태이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팔복 중 첫째에 해당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마 5:3)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어로 “the poor in spirit”이며, 이는 곧 겸손과 겸비함을 의미하며 하나님 나라를 갈급하는 심령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재물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에 재물이 없는 상태로서의

2) Luke T. Johnson, *Sharing Possessions: Mandate and Symbol of Faith*, (도서출판 대장간, 1989), 최태영 역.

가난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눅 6:20) 여기서의 가난한 자는 you who are poor로서 육체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는 팔복의 시작을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실제로 가난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을 그의 사명의 핵심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는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해서 가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인 언급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 6장 24절에 “화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부요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회생을 치르면서까지 행복해 지기를 원했다는 것을 문맥상으로 알 수 있다.

이같이 성경은 부요한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기를 그들은 이미 이땅에서 위로를 이미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로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이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까지 비유로 언급되어 있는 이 유명한 구절은 성경에서 부요한 자와 가난한 자를 어떠한 시각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비유에서 부자가 특별하게 나쁜 행위를 했다는 구절은 없다. 단지 그는 매우 부유하여 매일 호화로운 연락을 즐겼다는 사실만 언급되어 있다(눅 16:19). 이 구절에서 미루어 볼 때 이 부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쉽게 유추해 낼 수 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도 특별히 선행을 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단지 그는 이 세상에서 살때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언급만 되어있다(눅 16:21). 나사로는 세상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를 받게 된 것이다(눅 16:25).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만을 보면 무척이나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즉 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여야 하고(눅 16:24) 가난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가난한 이웃들

에 대한 구제와 선행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쁘게 상달되는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거기 나사로가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눅 16:20)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자가 나사로라는 자기 이웃이 자기 집에서 아주 가까운 데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불쌍한 상태에 대해 전혀 동정심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눅 16:21 상), 이는 부자가 적극적으로 나사로를 구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아울러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 데를 핥더라”(눅 16:21 하)라는 구절을 통해 개들이 부자보다 오히려 더 나사로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말은 바 재물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쓰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병폐 중의 하나인 ‘효용제일주의’와 그에 따른 ‘맘몬신 숭배사상’이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도모할 때에는 그일의 절대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효용만 크다면 어떤 일이건 간에 서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일 가운데는 인신매매와 같은 가장 악마적인 범죄와 막대한 환경 파괴를 수반하는 경제개발 등도 포함된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남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눅 12:33),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구제에 쓰이는 보물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함이 없는 보물”로 바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눅 12:34). 결국 우리는 예수께서 부자와 거기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셨던 의도가 자기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구제를 통해 하늘에 쌓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뜻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부자가 자기 이웃인 거기 나사로의 형편을 뵈히 알면서도 구제하지 않아 하늘이 아닌 땅에 자기 보물을 쌓았기에 죽어서 음부의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반면에 나사로는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고난

을 받으며 살았고 또한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의미 -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죽어서 하나님의 안위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가난과 부요에 대한 이러한 신약의 논리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의 저서에서 물질적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실패한 것을 영적 영역에서의 광신적 종교행위로 보상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sup>3)</sup>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명제를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뿐만이 아니고 경제생활에서의 공의를 아울러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성서에서 말하는 가난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세례 요한이 예수가 과연 대망의 메시아인가를 알기 위해 그의 제자를 보냈을 때 예수께서 자기가 바로 그 메시아임을 증거하면서 언급한 자들이 있다. 즉 소경, 앉은뱅이, 문둥이, 귀머거리, 가난한 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하나 같이 신체적인 질병과 장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될 수 밖에 없던 자들이다. 신약에서 '가난한 자'에 쓰인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penes'는 압박받은 사람과 저임금을 받는 자들, 즉 가난한 노동자들을 뜻한다. 또 다른 단어인 'ptochos'는 할 일이 없어 구걸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가리킨다.<sup>4)</sup> 이 두 단어에 공통되는 기본 개념은衣食住와 같은 삶의 기본 요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벗은 자와 주린자, 불구자, 갇힌자, 병든자, 남겨진 과부와 고아들이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했던 가난한 자들 속에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3) Christopher Wright, *Living as the People of God: The Relevance of Old Testament Ethics*, (IVP, 1989), 정옥배 역.

4) Tom Houston,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 빛과 소금 1990년 6월호, 특집: 제3세계 가난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pp. 81~87.



### 3. 성서는 부요를 거부하는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부요와 하늘에서의 천국’을 같이 소유하려는 경향이 많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유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어 생각하기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단순한 문제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의 결과로 심지어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양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땅에 이렇게 많아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난에 대한 성서적 인식틀(conceptual framework)을 구상하기 전에 우선 부요에 대한 성서에서의 인식을 분명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땅에서 풍요와 부요를 추구하면서 과연 하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찰하기 전에 이는 무척 미묘한 문제임을 먼저 인식하여야 한다. 즉 일률적으로 결론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의도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통한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이어서 부요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논의하기로 하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재물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보다도 천부인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마 6:31~32). 문제는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있다.

앞 장에서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이기적인 부자에 대한 성경의 태도를 살핀 적이 있다. 여기서는 이를 확대하여 부요를 가능케하는 원천인 재물 즉 Mammon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예수님께서 재물의 강한 탐닉성과 우상화 기능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즉

재물이 단순한 돈과 물질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권세인 ‘정사와 권세’의 한 단면이라는 사실이다.<sup>5)</sup>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즉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등) 함께 창조하셨음을 밝히고 있다.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시에는 원래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이었으나 인간이 타락한 뒤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두움의 권세 아래 놓여있게 되었다. 재물도 이러한 보이지 않는 권세의 일부분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표현하시면서 아람어인 Mammon을 사용하시며 이에 영적인 속성을 부여하고 계신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도 또는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도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주인이란 곧 Lordship이 아닌가? 그렇다면 재물은 분명 우리의 영을 지배하는 Lord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재물이 어두움의 권세의 일부분으로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너희가 하나님(God)과 재물(Mammon)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하)라는 구절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특히 재물, 즉 맘몬을 하나님과 경쟁적인 신으로 인격화 시키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재물은 결코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대적하도록 하는 무서운 힘이 있음을 알고자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을 의미하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재물을 섬길 때, 다시 말하면 맘몬신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른 심판을 면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른 그리스도인들의 경제원리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첫번째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자. 지금까지 우리는 맘몬신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우상화되기 쉬운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맘몬신의 우상화는 이미 아모스 선지자가 잘 밝힌 바 있다. “너희가 이

5) Richard J. Foster, Money, Sex & Power, (두란노서원, 1989), 김영호 역.

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여 세겔을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결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암 8:5~6).

이스라엘 백성의 재물에 대한 이러한 탐욕은 하나님을 크게 대적하는 것이었으며 결국 하나님은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암 5:24)라는 경고와 함께 무서운 형벌을 내림을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로 비추어 볼 때 첫번째 문제에 대한 결론은 자명하다. 즉 우리가 재물을 섬기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재물은 곧 mammon(맘몬)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나온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mammon(맘몬)을 향한 욕심으로 갈라지고 부패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그 어떤 찬양이나 예배도 거부하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단호함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사 42:8)라고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중세의 많은 수도사들이 극도의 금욕주의에 스스로를 가두어 평생을 노동과 기도와 묵상으로 보내면서 mammon(맘몬)이 주는 부요와 풍요에 대한 욕망을 강하게 절제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중세의 수도사들처럼 금욕을 할 필요는 없다. 단지 문제는 재물을 섬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이다. 이는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살펴보면 이해가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33). 이는 mammon(맘몬)을 거부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재물에 관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다스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맘몬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갖지 못한 자는 분명히 mammon(맘몬)에게 엮드려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불행히도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맘몬 즉 재물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를 쉽게 유도할 수가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스리는 마음을 가져라’는 것이다. 성경은 맘몬이 주는 부요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지는 않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재물을 거부하고 그에 따른 모든 부요에서 물러서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 재물의 우상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지만 그와 아울러 부요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약에서는 창세기의 창조사역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요한 분이신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에덴동산의 부요함과 온 우주의 광대함을 보라.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한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풍요함을 보라(창 13:2). 또한 그 아들 이삭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를 허락하셨기에 인근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까지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창 26:14). 욥은 동방의 큰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고 솔로몬이 누린 풍요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신약에서도 재물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자기의 부를 사용하였고, 삭개오는 회개의 의미로 자기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기꺼이 포기하므로써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또한 부유한 여자들은 자기의 재물로 제자들을 섬겼고(눅 8:2~3),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때 장례를 위해 자기의 부를 기꺼이 바쳤던 것이다.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므로써 물질을 진정한 영적 생활의 밖에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의 산물임을 밝히신 것이다. 또한 바나바가 밭을 팔아 교회에 헌금한 일(행 4:36~37), 고넬료의 구제와 선행(행 10:2), 자주장사 루디아의 선행(행 16:14)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이 볼 때 신약에서도 재물의 긍정적인 면을 가르치고 있다.

결국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아울러 인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야 하며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우리가 맘몬신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려면 가난한 이웃이나 또는 필요로 하는 이웃과 지체에게 부담없이 '주어 버리는' 것이다. 주는 것이야말로 부요를 주는 맘몬신에 대해 가장 확실하게 대적하는 방법이며 위에서 열거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은 바로 이런점에서 성공한 사람들인 것이다. 이러한 연유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는 가장 귀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와 예수의 머리에 부은 여인처럼 우리의 재물을 주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는 훈련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들은 영적인 파멸을 의미하는 '맘몬신이 가져다 주는 모든 부요'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 4.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

지금까지 우리는 가난과 부요에 대한 성서적 개념과 또한 성경에서 제시하는 부요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난에 대한 성경적 인식들을 구성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조감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인식들이 없이 가난과 그리스도인의 경제원리에 대해 언급하면 자칫 원칙론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만 하게되어 논점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술하고자 한다.

##### 1)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 2) 그리스도인의 경제원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땅과 그위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창 1:28) 소위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문화 명령이라는 어휘는 자칫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효용이 인정되는 한 무조건적으로 환경을 개발하라는 뜻은 아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할 중요한 기본개념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과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 그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문화명령을 인간의 만물에 대한 지배권의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이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만 인식하여 오히려 땅이 인간을 대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필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라고 규정짓고자 한다. 왕이란 인간의 땅에 대한 지배자로서의 위치를 의미하고 제사장이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올바른 예배자로서의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땅에 대한 올바른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예배로 표현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고는 이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 하나이며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것이라는 인식 하에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그분의 지혜(이는 온전함)에 우리의 지혜가 의존적이라는 철저한 인식이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배에 실패하는 자나 또는 아예 예배를 거부하는 자는 자기교만에 사로잡혀 이 땅을 관리하게 되며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경제 왜곡현상이 수반되는 것이다. 공해, 빈부격차, 식민지, 자원고갈 등은 하나 같이 인간이 이 땅을 잘못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고 그 근저에는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 호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데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거룩하고 흠없는)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그분께 드리는 예배로서 지켜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온전한 지배권을 행사하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경제원리를 살펴보기로 하자. 지금까지의 논의에

서 우리가 맘몬의 지배를 받을 때 불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게 됨<sup>6)</sup>을 알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맘몬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맘몬을 ‘다스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아울러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과감하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 하에 다음과 같은 경제원리를 제시한다.

### 노동에 따른 소득은 귀하게 여긴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종신토록 수고’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는 관계없는 소위 불로소득을 누리려고 하며 이는 상여, 중여와 같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육체노동보다는(예를 들어 농업, 제조 및 생산업) 유흥산업 쪽으로 많은 유희 노동력이 몰리고 있는 것도 편하게 돈을 모으려는 사람들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 3:10)는 말은 노동의 선한 본질과 그 창조적인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sup>7)</sup> 따라서 순수한 노동의 대가에 대한 가치를 노동이 수반되지 않는 자산소득보다 귀하게 여기고 정부의 세제 방침도 상속과 중여를 금지하고 자산소득을 노동소득에 비해 중과하여야 한다.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일을 하고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일은 피하거나 하지 말도록 권유한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경제행위에는 그 결과로써 주어지는 물질에 초점이 맞춰지기 보다는 영적인 관점이 추가되어야 한다. 즉 우리의 모든 일은 주께 하듯 하며(골 3:23),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지상의 재물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상급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제원칙은 궁

6) Ellul, Money & Power, p. 94.

7) Richard J. Foster, Money, Sex & Power, (두란노서원, 1989), 김영호 역, p. 76.

극적으로 인간의 가치가 경제적 가치보다 우선함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그에 따라 우리의 직업선택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기여하는 일을 찾아야 하고 그를 위해 기도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아무리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환경공해와 파괴를 유발하는 일은 도모해서도 안되고 함께 참여해서도 안된다. 또한 인간을 착취하고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영방침도 과감히 배제하여야 한다. 맘몬신은 이 경우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의 경제적 가치와 풍요에 대해서만 우리의 영혼에 호소하며 우리가 거기에 경배하여 엎드리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과감히 이러한 유혹을 뿌리쳐야 하며 이는 천국에서의 상급을 더 소원하는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재화와 용역만을 생산하고 유통한다<sup>8)</sup>

노동의 결과 나오는 재화와 용역은 그 노동하는 사람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하였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현격하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완구를 생산할때 인간의 목을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고 팔다리가 마음대로 떨어지고 붙고 하는 완구가 인기가 있다 해서(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인기임) 이를 수입하여 유통시킨다면 이를 가지고 노는 어린이들의 영혼에는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겠는가? 우리의 문화에도 어두움의 권세잡은 세력이 많이 침투하여 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식하여야 한다. 상품 광고를 보라. 거기에는 소위 대중을 상대로 하여 무차별적인 ‘인간 상품화’ 전략이 판을 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썬파 박사의 지적대로 창작과 창조력을 가장한 기형적인 문화형태와 열정<sup>9)</sup>을 이용한 어떠한 재화 및 용역 생산을 거부하여야 하고 그 유통 또한 거부하여야 한

8) 조성표(1990), “경제체계에 관한 성서적 원칙들”, 『통합연구』 제 3권 3. 4 합본호, p. 145.

9) Francis A. Shaeffer (1976), How should we then live?, (생명의말씀사, 1984), 박형용 역, p. 250.



다. 유행이란 본래 왔다가 사라지는 법이다. 그러한 하찮은 유행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관여할 필요가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하찮은 것들의 유통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삶 그 자체에 관계된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구의 천연자원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의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허영심을 충족하는 일에 동참해서는 안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통하는 '상황윤리'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윤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로 이 절대윤리를 우리의 경제생활 모든 면에 적용시키고 선포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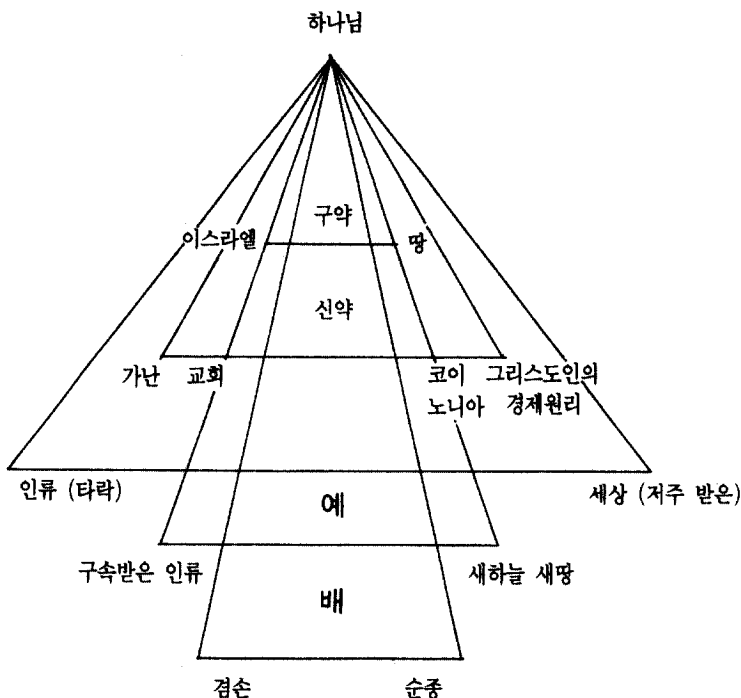
일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우리의 소득이 분배되어야 한다. 우리는 2장에서 누가복음에서 언급한 가난한 자들이란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서술한 바 있다. 성경은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며(갈 2:10) 특히 믿는 자들에게 더욱 그러하라고 하였다(갈 6:10). 우리 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할 수 없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며 한 지체로서 당연히 감당하여야 할 부분이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는 이웃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허한 말과 혀로가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요일 3:18)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배려는 국가도 사회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빛의 자녀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다.

## 5. “가난—그리스도인의 경제원리—진정한 예배”에 기초한 인식틀

우리는 지금까지 가난에 대한 성서적 개념과 그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경제원리에 대해 고찰하여 왔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난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사회가 부패해서 그렇

다든지, 정부가 경제정책을 부유한 사람들 위주로 시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든지 등등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가난과 그 상대적 개념인 부요에 대해서 꽤 자세하게 서술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진정한 예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가난과 부요는 모두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비추어 보면 왜곡된 현상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가난과 부요의 원인을 죄악에 가득찬 사람들의 경제적 착취에서 기인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합왕이 나봇의 포도밭을 탐내어 그를 죽이고 그밭을 소유하였을때,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는 분명했다. 즉 아합의 범죄에 진노하시며 똑같은 방법으로 벌하시리라는 것이었다. 또한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는 맹렬하다. “침상에서 악을 피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산업을 확대하도다”(미 2:1~2).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제적 착취에 대해 엄중히 징죄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구약과 신약을 경제, 사회적 각도와 신학적 각도에서 조감할 수 있는 인식틀을 제시하였는데<sup>10)</sup> 이는 성경을 체계있게 조감하는데 매우 유용한 인식틀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필자가 의도하는 “가난-그리스도인의 경제원리-진정한 예배”라는 차원이 빠져 있다. 물론 이는 라이트가 말하는 경제, 사회적 각도와 신학적 각도를 보충하여도 무난히 본래의 인식틀 내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인간의 타락에 기초한 경제적 착취와 그에 따른 가난, 거기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인의 경제원리 및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라는 차원은 별도로 표기하여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림 1>은 이러한 필자의 의도를 보여주는 인식틀이다.

10) Christopher J. H. Wright (1983), *Living as the People of God: The relevance of Old testament ethics*, (IVP, 1989), 정옥배 역, p. 121.



〈그림 1〉 “가난 - 그리스도인의 경제원리 - 진정한 예배”  
의 차원이 첨가된 인식틀

〈그림 1〉에서 보면 가난은 사회적 각도에 첨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가난은 부요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인식하여야 하며 그래야만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당위성이 세워지는 것이다. 신구약을 통틀어 가난에 대해 언급할 때 그 가난이 개인의 무능과 어리석음에 기인한다고 보기 보다는 그 반대로 그 사회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맘몬신을 우상으로 섬길때 땅이 인간을 대적하고 부요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므로써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설혹 한 개인의 가난이 그 사람의 무능함과 게으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러한 자에게 더욱 복음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그

러한 자들을 외면하는 그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수반된다. 이렇게 휩쓸린 자가 많을수록 그러한 사회에는 맘몬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기 마련이며(눅 16:14) 이러한 신앙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맘몬을 섬기든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심은(눅 16:13) 이미 서술한 바와 같다. <그림 1>에서 그리스도인의 경제원리는 경제적 각도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경제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는 세상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황윤리’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맘몬신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도덕규범처럼 우리의 삶에 침잠되어 있다면 이는 그 본래 의의가 상실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되며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알며 또한 자기의 경제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절대윤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모든 관심은 최종적으로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귀착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하여 엎드려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한다.

## 6. 결론

현재 전세계에는 매일 4만여 명의 사람들이 굶어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는 3일에 한 번씩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폭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들러서 귀신들린 자를 고쳤을 때 그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 돼지가 때죽음을 당하였다. 그때 거라사 사람들은 뭐라고 했던가? 예수님께 자기들을 빨리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던 것이다. 결국 그들

은 예수님보다도 돼지를 선택했던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입으로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시인하지만 실제로는 맘몬을 섬기는 사람들이 불행히도 많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여야 한다. 우리가 더이상 영적인 이야기만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부요를 누리고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불행히도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교회 내에 들어오는 신자들이 많음도 또한 우리는 인정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 죄의 사함을 받고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요 명령이다. 따라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도 같이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 서도록 돕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이며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경제원리를 준행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마음이 재물에 있는 부요한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딤후 6:17-18).